

쓸 곳 많은데 예산은 없고...광주·전남 복지 '낙제점'

5대 권역 중 기초수급자 비율 가장 높고 복지예산 비율은 최하 고령인구 비율 18.8% 전국 최고...1인 가구 32.6% 급속 증가 삶의 만족도 광주 43.4%·전남 40.9%...가족관계 만족도 1위

전국 5대 권역 가운데 광주·전남권은 10만명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세밀한 복지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광역권 통계분석' 자료(인구·사회부문)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전남권 인구 10만명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4908명으로, 전남(4715명)보다 4.1%(193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5대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권(4535명), 동남권

(4042명), 충청권(3549명), 수도권(2962명)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광주·전남권에는 인구 대비 취약계층 비율이 높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광역권 중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분야와 보건분야 예산을 합한 예산 비중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40.0%)이었고, 동남권(38.4%), 대구·경북권(33.0%), 충청권(32.8%), 광주·전남권(31.2%)이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지역별로 나누면 광주 47.2%·전남 25.8%로,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5대 권역 기초수급자 수·복지예산 비율
(인구 10만명당, 단위:명%)

전국	3628(33)
광주·전남	4908(31.2)
수도권	2962(40)
동남권	4042(38.4)
대구·경북	4535(33)
충청권	3549(32.8)

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권에서는 1만5837명이 빠져나 가며 지난 1998년(3750명 순수입) 이후 22년 동안 해마다 순수출을 기록했다. 수도권(2596만명)을 제외하고 4대 권역 인구 수를 비교하면 동남권(783만명), 충청권(569만명), 대구·경북(507만명)에 이어 광주·전남권(325만명)

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대비 광주·전남권 인구 비율은 6.3%이나 2017년에는 5.9%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전남권의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광주·전남이 18.8%로, 전국 평균(15.7%)을 크게 웃돌았다. 이 비율은 25년 뒤 4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4대 권역 고령인구 비율은 대구·경북권 18.5%, 동남권 16.8%, 충청권 15.9%, 수도권 13.8% 등이었다. 광주·전남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32.6%로 2000년 17.7%에 비해 14.9%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39.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충청권(33.1%)이 가장 높고,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31.5%), 동남권(29.8%), 수도권(28.8%) 순이었다. 광주·전남권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8.3%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단 광주 아파트 비율은 79.7%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8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 비율은 44.0%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2.1%로 전국 평균치(42.7%)보다 낮았다. 광역권별로 수도권(44.9%), 동남권(42.6%), 광주·전남권(42.1%), 충청권(40.4%), 대구·경북권(33.8%) 순이다. 시도별로 광주시의 만족도(43.4%)가 전남도(40.9%)와 비교해 2.5%포인트 높았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63.2%로 광역권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대 권역은 광주·전남권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대구·경북),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나뉜다. 호남통계청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현안과 관련,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한 기획통계를 잇따라 발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경제 부문 광역권 통계분석을 공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친환경 포장재 사용해요" ㈜광주신세계 이동훈(왼쪽 세번째) 대표가 28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철티지'에 동참하며 친환경 포장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친환경 경영을 하며 지난 달 환경부 '녹색매장'에 지정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탈코로나 기대' 외화적금 상품 인기

광주은행 '여행스케치' 가입 1만좌 소액 환율투자 '환테크' 상품 출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외화적금 상품도 인기가 높다. 광주은행(은행감독)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 가입이 1만좌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18일 판매를 시작한 이 외화적금은 해외여행을 위한 목돈마련과 '환테크' 투

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은 월 50달러(미국)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0.12%를 제공하며, 적립식 최대 70%까지 환율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앱으로도 확대했다. 광주은행은 투자 흐름에 맞춰 1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환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액 외화적금 상품 '달러진(DOLLAR眞) 외화적금'을 내놓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

IT여성기업인협회 호남지회 출범

초대 지회장에 고청심 부회장

여성 정보통신기술(IT) 창업촉진을 위한 IT여성기업인협회 호남지회가 오는 30일 출범한다. IT여성기업인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조선대학교 서석홀 대강당 4층 대회의실에서 호남지회 출범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IT여성기업인협회는 우수한 IT여성기업인의 발굴·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사업으로 여성기업 지원, 인재양성, 차세대ICT여성리더클럽 운영, 정보화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호남지회 설립으로, 본회와 영남지회 등 2개 지회를 지니게 됐다. 호남지회 초대 지회장으로는 고청심(50·사진)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고 신임 지회장은 조선대와 숭실대에서 공학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숭실대학교 초빙 교수

와 ㈜셀로직 부사장, ㈜편텍 대표이사, ㈜더브레인에스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3월부터는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여성 IC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301.89 (-0.95)
코스닥	1017.91 (+5.78)
금리(국고채 3년)	1.470 (+0.029)
환율(USD)	1130.30 (+2.60)

배값 40% 상승에 전남 배 재배면적 5년 만에 늘었다

전남 2551ha 전년비 19% 상승 봄감자·사과 등 재배면적 급감

지난해 기상악화로 올해 배값이 40% 넘게 오르면서 전남 배 재배면적이 5년 만에 증가했다. 보리와 감자는 소비 부진으로 줄어든 반면, 우리밀 육성정책 덕분에 밀 재배면적은 증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배 재배면적은 2551ha로, 전년(2143ha)보다 19.0%(408ha)

증가했다. 전남 배 면적은 전체 면적 9774ha의 26.1%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넓다. 전남 배 재배면적은 지난 2015년 3499ha 이후, 2016년 2499ha, 2017년 2450ha, 2018년 2330ha, 2019년 2230ha, 2020년 2143ha 등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신고 배 상품 1kg 도매가격은 올해 5270원으로, 지난해 3728원 보다 41.4%(1542원) 뛰었다. 전남 봄감자 면적은 1852ha로, 전년(2331ha)보다 20.5%(-479ha) 급감했다.

전남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562ha)보다 63.0%(-354ha) 감소한 208ha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5년(200ha) 이후 26년 만에 최저다. 전남 결구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71ha에서 17ha로, 76.1%(-54ha) 급감했다. 쌀보리 역시 1만273ha에서 7074ha로, 31.1%(-3199ha) 감소했다. 전국 면적의 69.6%를 차지하는 전남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올해 4984ha로, 전년(5193ha)보다 4.0%(-209ha) 감소했다. 밀 재배면적은 전년 2337ha에서 올해 2345ha로, 0.3%(8ha)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합니다

▶ H. 010-2928-0202

시세 9억, 부동산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 상담문의. 010-3605-5000